

왕이요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 : 마태복음 2:1-12

요절 : 마태복음 2: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열흘 전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뽑으라면 박항서 축구 감독일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게임 6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후반 32분에 자기선수가 몸싸움에 쓰러졌는데도 주심이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자, 심판에게 격렬히 항의했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이를 두고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새끼병아리를 보호하는 닭처럼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팀원을 아끼고 승리로 이끈 그의 리더십을 보며 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닭과 비교할 수 없는 **목자가 있습니다**. 꿈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 목자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까지 인도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는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랐고 마침내, 그에게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순수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1-6)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1) 헤롯왕은 에돔 사람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황제 아구스도를 등에 업고 유대의 하스몬 왕가를 물리치며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B.C37-4년)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내와 처남, 장모와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파괴되었던 성전을 새로 건축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후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헤롯왕의 공포 정치와 함께 국제적으로는 로마황제의 호적명령으로 세금징수와 노역 등 어두운 그림자가 시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 때와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9:2)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a)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먼지입니다. 예수님은 풀처럼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빌2:6-8)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해아래 새것이 없던 어두운 세상에 드디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요일 1:1) 예수님은 직접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 멸시와 인간의 슬픔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겸손의 왕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때 예루살렘에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등 고대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였고, 귀족계급에 속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통달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며, 별들을 관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

로 생활로 세계각지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예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민24:17) 특히,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는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통이 단절되고 이방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메시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세상의 권력자 밑에서 가까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숙청당한 권력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 통치자들의 한계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길 고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하늘의 뜻을 살폈습니다. 매일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간 낭비요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스마트폰만 잡아도 별천지가 열리고 신천지를 맛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땅의 일입니다. 별 볼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꿈꾸고, 100세 노후대책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진리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성공한 현실에 만족하거나 쾌락으로 가지 않고 **경배의 대상, 진리의 왕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예녹 목자님은 동방박사들을 생각할 때, 진리를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시니어 목자님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곧 칠순의 오묘한 목자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늘 소망하시고, 방글라데시아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선교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이, 청년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오묘한 목자님께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쿵쿵’ 뛰기 시작했고, 금 노다지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은 두 달 장기 휴가를 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뜨거운 사막을 지나 1,000km가 넘는 멀고 먼 유대 땅으로 향했습니다. 음성 안내 네비게이션도 없지만, 오직 그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소망을 가득 품고, 낙타의 고삐를 결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한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배란 그 대상을 높이고 그 앞에 순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경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혼의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심을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경배를 드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쭉쭉 달리는) 형통한 날이나, (사망이 드리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 곤고한 날이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예배드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삶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3)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당혹스럽고 곤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먼저, 헤롯이 소동했습니다. (왜 일까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다윗 왕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만일 약속된 유대의 왕이라면, 자신의 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방문은 헤롯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할렐루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하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동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세상에 도적맞고, 세상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기름도 없이 등을 들고 신랑

을 맞으려 나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다면 구주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부귀영华的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불안에 떠는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긴급 소환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5,6절 말씀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5,6)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습성이 양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Cast sheep)** 웅덩이에 빠집니다. 양처럼 눈이 나쁜 인생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좌절하고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양은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무척 세서 울타리를 쳐놓아도 굳이 밖으로 빠져나가 독초를 먹거나 맹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인생들도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기어이 나가서 돈과 쾌락과 권력을 탐하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낯선 환경이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불안해합니다.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인생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늘 넘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만, **뒤집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뒤집어진 채 발만 동동거리며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인생들을 바로 일으켜 세워줄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시는 물질의 풍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 귀가 잘 발달 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영생의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목자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23:6) 선하심은 ‘토브(히)’ ‘좋은 것, 유익, 번영’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증입니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히)’ ‘자비, 사랑, 친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과부 룯에게, 룯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목자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과 밤낮 함께 하시면서 (돌아온 탕자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 등) 천국 복음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마9:36) 다섯 번이나 남편들에게 실망하고 삶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덤사이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던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서서 귀신의 세력과 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영적전투를 벌이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젊은 아들이 죽은 나인 성 과부, 어린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 오빠가 죽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 등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달리다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의 권능으로 이때 죽은 자들을 모두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다 손에 돌을 쥐고 여인을 향해서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거룩한 삶의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를 (머리위에) 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진홍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자녀로 함께 하시고자, 마지막 한 방울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10:11) 이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사랑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2. 경배와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7-12)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7) 별이 나타난 때를 알면, 그 아이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고하여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8) 당시 그의 나이 70세였음에도 권력을 놓칠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기만적인 계략에 동방 박사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또한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헤롯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소속,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에 거하든지 빛을 미워하여 어둠에 속하든지 어느 한편에 서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들은 성경박사들이었지만, 겨우 8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곧장 나서기는커녕, 종이라도 보내어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왔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종교지도자들처럼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결코 촌마를 누추한 마구간에 가장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9,10)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시 메시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성탄에 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다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찾던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올해 김경동 목자님이 천사같은 김지수 목자님을 신부로 맞아 첫 행진을 할 때의 기쁨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19:8) 그의 재산 절반을 구세군 자선냄비에 나누어 줄 만큼의 기쁨입니다.

기쁨에 벅찬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11) 그들이 옆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 첫 자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표시로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선물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황금처럼 변치 않는 충성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유향]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향료와 향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과 순결, 죄인을 위한 죽으심에 감사와 헌신을 뜻하는 예물의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인생들의 왕이요 목자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고 영혼의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김리브가 목자님은 성탄절에 밤이 늦도록 소감을 쓰면서,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금씩 보배함을 모아 정성을 드렸다고 덕담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심령에 깊이 새기고 진심의 보배함을 드리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며, 충성과 순결, 감사와 헌신을 바쳐 드려야합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시8:1) 1년 전 성탄예배 대표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게 되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또 올해는 수양회 메신저 훈련을 조용히 너머 가나 했는데, 가장 추운 겨울철에 양털 깎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속살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마터면 소동할 뻔 했습니다. 저는 양처럼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항상 내가 왕이었습니다. 교회방문은 주일예배 한번, 수양회는 마지막 날 한번 참석했고, 성경공부와 일용할 양식과 소감쓰기는 no, 수양회 때마다 메시지 강사는 절대 no 하며 동역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반역했습니다. 영적 소원도 없고 보통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에 깊이 염려하며, 뒤집힌 양처럼 발만 동동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직장도 3년째 임금동결에, ½인원감축 등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지금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흉추디스크 플러스 요추디스크, 만성 위장병, 치질, 만성 B형간염 등 건강문제는 나에게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통을 조이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받은 복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소망이나? 이런 꼴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나?’ 생각하며 아무 짝에 쓸모없는 자격지심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탄 교회를 가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자’는 소원이 쏴뚝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첫날 첫 예배 시간에 이이사야 목자님의 오리지날 뽕소리 찬양

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자발적인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절 주간에 송누가 목자님의 간암 회복을 위한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간절히 나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 목자님은 자신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평생 양들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존경하는 목자님의 소천 소식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1,12)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송누가 목자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저는 목숨을 걸고 새벽기도를 계속 이어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달이 열 달이 되었습니다. 피곤은 더욱 거칠게 쌓여만 가고 운전하다가 졸기도 하며, 정신이 몽롱하여 일에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의 추잡함과 탐욕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꺼려하던 여름 수양회 메신저를 검히 영접하고,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준비면서, 매일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 물질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올해 초, 저는 이사와 목자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예배시간에 홀로 특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 날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42:5) ‘그가 나타나’ 예수님은 제 인생의 답이셨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의 자세로, 금년 여름 수양회와 가을 수양회에 때,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2달 동안 예배 사회를 맡으면서 익숙한 예배가 되지 않고 가슴 벅찬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였고, 미약하나마 그동안 서먹했던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동방박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거스틴 목자님은 마태를 해병대 훈련소까지 직접 데려가 말씀을 먹여 주시고, 다혜 목동님은 벅찬 학원 강의에도 찬양 반주를 감당합니다. 폴린 목자님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경선생이 되어 1:1로 양들을 먹이고, 다니엘라 목자님은 사랑방 제조상궁이 되어 조선간호대 아홉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안드레 목자님은 정년퇴직 후, 키르키스탄 선교지에서 양들을 돌보시고, 지관 목자님은 50세가 넘어도 학생들과 축구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목자, 목동님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듯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7부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목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비록 저의 직장문제, 자녀진로, 건강문제 등 현실은 어두워 보이고, 수년 동안 허리통증과 근육통으로 잠을 설쳐야 하지만,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깨우시고 2년째 매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새벽 일용할 밥상으로 제 영혼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시143:8) 그리고 지난주까지 성경읽기 1년 2독을 마치면서,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왕이요 목자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참 기쁨임을 체험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탄예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12)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말을 했던 헤롯의 잔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어찌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도해 주실 목자 같은 왕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무릎을 꿇고, 실수를 하더라도 먼저 사랑의 팔로 안아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느낄 때, 부모의 참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

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악 세상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군림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무릎을 굽히시며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자기중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왜곡된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며 우리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향하는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구명 난 내 영혼의 그릇이 고쳐지고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는 과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사랑을 드립니다.